

인도네시아 선교소식

2025년 7월, 한옥희 선교사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시편 68:13)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의 현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는 소식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현실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승리와 은혜로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교의 동역자님들께도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그 동안의 선교소식과 앞으로의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신학교 사역소식

지난 6월5일에 졸업식을 잘 마치었습니다 25명의 신학사와 11명의 신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하는 성대한 졸업식 이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이 모든 귀한 졸업자들이 인도네시아와 또 세계 여러 곳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옥희 선교사는 지난 학기에도 기도하여 주셔서 기독교 교회사 강의 를 잘 감당했습니다. 해마다 신학생들의 영적 지적 정적인 변화들을 평가해 보면서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영적으로 또정서적 성숙도는 예전의 신학생들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세태의 변화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교수진들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지기도 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7월부터 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학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신학생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로 또 열정적인 성령의 신학생들이 되도록 과 교수진들에게 영적능력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잘 지도하는 교수진들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사역소식



저희 유치원도 지난 6월 11일에 학기 마감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 신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희들의 장소와 교사의 상황에 맞는 인원만큼의 원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2명의 원아들과 7명의 교사가 새 학기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유치반의 인원이 많아져서 장소와 교사의 부족으로 영아반은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8월까지 유치반과 유아반은 계속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입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일년 동안의 유치원 사역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천국 복음 사역이 크게 확장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유치원이 지역적인 종교적 상황에서 기독교의 존립과 사명의 큰 역할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치원들의 지역적 연맹이 있는데 저희 유치원이 속한 지역에서는 약 32곳의 유치원이 있으며 그 중에 저희 유치원이 하나뿐인 유일한 기독교 유치원입니다 기독교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유치원 사역과 교사들의 사명감에 성령의 은혜를 늘 덧입혀 주셔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숙사 사역소식



오랜만에 저희 두란노 기숙사의 풍성한 사역의 열매의 소식을 드리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며 그 동안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선교의 동역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월안에 대학원생인 Occh와 신학생인 Meny와 Depi가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학업을 성실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들의 장래의 직업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Occh는 법학과의 교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힘쓰고 있으며 Meny와 Depi 일년 동안 의무 사역을 기독교학교와 교회에서 감당할 예정이며 기독교 종교교사가 되는 것이 장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Rosnia는 대학에 잘 합격할 뿐만 아니라 주립대학에서 주는 전액장학금과 생활비의 일부까지 받는 제도에 합격하여 저의 부담을 벗어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Pina는 2차 시험을 잘 마치고 며칠후에 있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합격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ina도 합격만 되면 Rosnia와 같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새로이 두 사람의 고등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 왔습니다 Vila와 Levi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생일 될 두 사람들의 대학생활과 학업을 위해서와 고등학교를 적응중인 두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천천히이지만 사역의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며 또 그 안에 열매들도 있게 하심은 오직 모든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지원이 있으시기에 가능함 인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의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동역자님들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소식 드릴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한 옥 희 선교사 올림

